

고교학점제에 따른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의 음악 선택과목 운영 현황 분석

Analytical Research of Music Elective Course Operation Status for Inter-School Joint Curriculum under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김일영*

Ilyoung Kim

초록 본 연구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의 음악 선택과목 개설 및 운영 현황 파악에 목적을 두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의 음악 선택과목 개설 수와 학교 수 추이, 음악 선택과목 및 과목 편제별, 시도별, 학교 특성별, 온·오프라인 유형별로 운영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의 음악 선택과목 수는 전년도 보다 2021년에 증가하였고, 전문교과 I 편제의 전공 실기, 음악이론, 시창·청음, 공연 실습, 음악사 등이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평균 3과목 정도 개설되었으나 편차가 컸고, 주로 학교 규모가 크거나 대도시에 위치하고 선도학교에서 온라인보다는 주로 오프라인 방식으로 개설되는 경우가 많았다.

주제어: 고교학점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음악 선택과목, 전문교과 I, 음악 과목 운영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offering and operation of music elective courses in the inter-school joint curriculum according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In addition to the trend of opening music electives courses and the number of schools in the inter-school joint curriculum from 2020 to 2021, the operation status was analyzed by music electives courses, subject organization, city and province, school characteristics, and online and offline types. As a result, the number of music elective courses increased in 2021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and it was found that major practical skills, music theory, sight singing & ear training, performance practice, and music history classified as Specialized subjects I were established. The average number of courses opened by city and province was about 3 with a wide variation. Most of them were large-scale schools located in large cities, or designated as leading schools in an offline system.

Key words: high school credit system, inter-school joint curriculum, music elective course, specialized subjects I, operation of music courses

* Corresponding author, E-mail: kiy92@hanmail.net

Music Teacher, Seoul Yeongdeungpo Girls' High School, 184-3 Singil-dong, Yeongdeungpo-gu, Seoul, Korea

Received: 27 November 2022, Reviewed (Revised): 4 January (5 January) 2023, Accepted: 26 January 2023

© 2023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I. 서론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2021b)는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에 따라 2020년도부터 마이스터고에 학점제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특성화고와 일반계고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전환을 본격화하고 단계적으로 2025년까지 고등학교에 전면 시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수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학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학교 지정과목 수는 축소하고 학생이 원하는 선택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이다. 그 대책으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의 운영을 통해 단위 학교 차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과 소수 학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과목 선택권 보장에 그 의의가 있다(Park, 2021).

이에 기존 고등학교 수업량의 기준을 ‘단위’에서 ‘학점’으로 전환하고, 현재 고등학교 전 과정의 204단위 이수 기준을 192학점으로 낮추어 수업량의 적정화를 추진한다. 또한 교사나 강사 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선택과목의 개설이 어려운 소규모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개발과 학생 선택과목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22a; Kim et al., 2020).

기존의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공동교육과정에 의한 수업에 대해 학생들은 진로와 진학에 도움이 되며 과목 선택권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고한다(Park, 2021). 반면에, 안정적인 고교학점제의 현장 적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현미 외(Kim et al., 2020)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에서의 학생 중심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진로 및 학업 설계 지도, 학생평가 내실화, 학교 문화 개선, 학교 공간 조성 등을 조사하여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고교학점제의 제도적 개선과 수업 형태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최근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음악교육 분야에서는 국내외 음악과 교육과정 및 고등학교의 음악과 선택과목에 대한 분석연구를 비롯하여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음악 선택과목 구성 및 공동교육과정 연계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박지현, 김지현(Park & Kim, 2021a)은 국내외 음악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고등학교 음악 교과목 분석을 통해 음악 선택과목의 경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고등학교 음악 선택과목 구성과 운영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외에도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고등학교의 음악 선택교과목 편제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해외 고등학교의 선택중심 음악과 교육과정 사례분석 연구, 음악과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과 교과목 특징에 관한 분석연구 등 고교학

점제가 도입과 관련하여 음악 선택과목의 운영에 대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Bae, 2019; Hyun & Hong, 2016; Lee, 2021; Lee, 2022; Lee, Jeong & Oh, 2022; Park & Kim, 2021b).

임은정(Lim, 2021)은 공동교육과정에서의 학교 밖의 지역사회와 음악 교육과정의 연계 방안을 검토하였는데, 학교의 음악교육이 지역 기관과의 협력적 음악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소수 학생을 위한 음악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동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비영리 공공 음악교육 기관과 지역 음악지도자 인력풀 및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음악 교과 선정 및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협력체제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처럼 고교학점제의 시행을 앞두고, 음악 선택교과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면서도 학생들의 음악 진로 선택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실행시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직면해 있다. 또한, 고교학점제의 실제 현장 적용성에 대한 문제점들이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음악 선택과목 운영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에 의한 음악 선택과목 편성 및 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거점형이나 연합형 공동교육과정을 통한 음악 선택과목 운영의 현주소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악과 공동교육과정 선택과목의 현황 분석을 통해 고교학점제를 대비하여 음악과 선택과목 운영 및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지난 2년간(2020년~2021년)의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음악 선택과목 개설 추이 및 운영 현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절차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된 음악 선택과목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문헌 연구를 통해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과 시도별 공동교육과정의 운영시스템, 국내외 고등학교 음악 선택과목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가 진행된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의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음악 선택과목 현황 추이를 비롯하여, 전국 17개 지역의 공동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음악 선택과목별 개설 현황 및 과목 편제별 개설

현황, 음악 선택과목 개설 학교의 지역 특성 및 규모와 연구(선도)학교 여부, 온·오프라인 유형별 개설 현황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시도별 고교학점제 및 공동교육과정 통계 자료,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홈페이지, 고교학점제와 공동교육과정 담당 부서방, 전국 시도교육청 산하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와 선도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의 내용은 이주연 외(Lee et al., 2021)의 분석 항목을 참고하였고 김현미 외(Kim et al., 2020)의 자료 분석 방법 및 코딩 방법을 참고하였다.

2. 분석 내용 및 기준

본 연구의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된 음악 선택과목 현황 파악을 위해 조사한 자료는 <Table 1>과 같이 범주화하고 항목별 해당 내용과 기준에 따라 분석하였다.

첫째, 시도교육청별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된 음악 선택과목을 오프라인 및 온라인 유형별로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지역사회 및 대학연계의 학교 밖 공동교육과정은 제외하였으며, 개설 시기는 2020년과 2021년도의 2년간으로 각 시도에 개설된 음악과 공동교육과정 과목을 조사하였다.

<Table 1> Analysis items and contents of this study

Category	Item	Contents
Current status of courses openings	Types of inter-school joint curriculum	Offline joint curriculum(core type, coalition type), Online joint curriculum
	Opening time	Year of openings
Current status of schools	Regional characteristics	Big city(Population 500,000 or more or area 1000 km ³ or more), Small and medium-sized city(a city with a population of less than 500,000), Towns and villages
	School size	Large(more than 600 students) Medium(more than 300 to less than 600 students) Small(less than 300 students)
	Designated school type	Research school, Leadership school, etc.
Classification of courses openings	Subject name	Subject name specified in the national curriculum
	Curriculum organization	General subjects (common subjects, general elective subjects, career elective subjects), Specialized subject(specialized subject I, specialized subject II), etc.

둘째,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의 음악 선택과목을 개설한 학교 소재지에 따라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으로 구분하고, 학교 규모는 대규모 학교의 경우 25개 학급 이상 혹은

600명 이상, 중규모는 13~24개 학급 이하 혹은 300명 이상 600명 미만, 소규모는 12학급 이하 혹은 300명 미만의 학생 구성을 준거로 삼았다. 또한, 해당 과목이 개설된 학교의 고교학점제 연구 및 선도학교 유무를 조사하였다.

셋째, 국가 교육과정에 명시된 과목명을 근거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된 음악 선택과목을 조사하고, 국가 교육과정 상의 교과 편제에 따라 보통교과는 공통과목, 일반 선택과목, 진로 선택과목으로, 전문교과는 전문교과Ⅰ과 전문교과Ⅱ로 구분하고, 그 외의 과목에 대해서는 ‘고시 외’ 과목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된 음악 선택과목 현황 파악에 중점을 두었고, 비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으로 개설된 과목이나 지역 연합 및 대학과 연계로 개설된 학교 밖 공동교육과정의 음악 선택과목은 제외하였다.

Ⅲ. 이론적 배경

1.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 도입의 배경

공동교육과정은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단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학교나 교육청에서 공동으로 개설하고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참여하여 함께 이수하는 교육과정’으로 정의된다(Lee et al., 2021).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과 국가 교육과정 및 교육부 훈령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48조에 “②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3.21.]”로 명시함에 따라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과 및 교육과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21c).

또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22-2호, 2022.1.17.)에 따르면,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22b, p.12).”로 제시한다. 즉 학교에 미개설된 선택과목의 이수를 원하는 학생의 경우에 그 과목이 개설된 다른 학교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Ministry of Education, 2021a).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교육부 훈령 제393호, 시행2022.3.1.)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에는 “⑮ 고등학교에서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로 이수한 과목[진로 선택 과목(진로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 포함),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은 ‘교과’, ‘과목’, ‘단위 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 수)’를 입력한다.” 등

실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에 의해 과목을 이수한 결과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 발달상황에 기록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22b, p.12). 이러한 지침을 바탕으로 고교학점제에 따른 공동교육과정 운영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이다.

첫째, 교육 격차의 해소이다.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2021b)는 시도별 고교학점제를 준비상황에서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교육 격차가 해소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활성화와 지역대학 연계 교육 및 체험활동을 다양화하는 등 지역 격차의 극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현재 17개 각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온라인 공동 교육 거점센터가 운영하고, 지역대학이나 지역사회와 연계한 고교 진로 프로그램 등을 교육 소외지역 학생에게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는 것이다.

둘째,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2021b)는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위한 시도 공통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KEDI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플랫폼인 ‘교실 온닷’ 활용 및 담당 강사 인력풀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현재 공동교육과정은 주로 방과 후나 주말에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정규시간 내로 편성하는 방안을 확대해 나가며, 운영 시기도 학교 정규수업과 동일한 시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학기당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수강하는 과목 수를 제한하여 과도하게 수강하는 것을 지양할 방침이다.

셋째, 학교 안팎의 교육과정의 균형과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학교 안은 물론 ‘학교 밖 교육’ 학점을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즉 학교가 아닌 공공기관으로 시도교육감이 사전에 승인한 기관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연계하여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통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학교 밖 교육기관 선정, 프로그램 발굴, 시도별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등 학교 안팎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할 계획에 있다. 이처럼 고교학점제는 학생 중심의 제도로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과 학생 개인의 발전을 지원하는 실천적 교육 제도를 실현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Lim, 2021).

고교학점제의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김현미 외(Kim et al., 2020)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해 학생 중심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진로 및 학업 설계 지도, 학생평가 내실화, 학교 문화 개선, 학교 공간 조성 등 실제 고교학점제로 인한 수업 형태의 변화를 언급하고, 학생 선택과목의 개설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등의 학교 간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학생 선택과목의 확대와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박명희(Park, 2021)는 공동교육과정 수업을 수강한 학생을 대상으로 공동교육과정 인식, 공동교육과정 만족도, 고교학점제 인식, 과목 선택권 확대 필요성 인식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통해, 공동교육과정이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에 도움이 되고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교사 면담 및 질문을 통해 공동교육과정 운영실태와 고교학점제 연계 가능성 및 개선점 등을 제시하였다.

이주연 외(Lee et al., 2021)는 공동교육과정 과목 개설 추이 분석(2018-2020년)하고 공동교육과정 세부 운영 현황 분석을 위해 개설 과목, 개설 학교, 참여 학생 현황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 시·도 교육청별로 개설 과목, 개설 학교, 참여 학생에 대한 특성과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되는 과목 특성을 분석하였다.

2. 시도교육청별 공동교육과정 운영 현황

공동교육과정은 학교나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며,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수업을 학교 간에 교육과정을 공유하고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도교육청별 공동교육과정의 명칭과 세부 운영 프로그램명은 <Table 2>와 같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공동교육과정 중에서도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학교 밖 공동교육과정’은 분류항목에서 제외한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세부 운영 프로그램의 구분은 ‘온·오프라인 유형’과 수업방식 및 수업개방 범위에 따라 ‘거점형’과 ‘학교 연합형’으로 나뉜다. 먼저, ‘거점형’은 거점학교에서 과목을 개설하여 해당 지역 내 모든 고등학교에 개방하는 형태이다. 보통 정규교육과정 내 과목으로 소인수로 개설되며, 정규시간 내에 혹은 대부분 방과 후에 수업하게 된다. 전남의 경우 단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예술·체육 전문교과를 예술·체육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 개설·운영하는 거점형 공동교육과정으로 ‘아트페스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거점형’공동교육과정은 시도별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거점센터’, ‘학교 연합 공동교육과정’ 등 서로 다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 따라 방과 후가 아닌 정규수업 시간에 소속 학교의 온라인 학습실 등에서 원격 플랫폼에 접속하여 수업을 듣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프로그램을 따로 구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부산의 ‘온공교실’의 경우, 교과별 거점센터 I(인문사회·정보·교양 교과), 거점센터 II(과학·제2외국어 교과)로 8개교를 지정하여 일과 중 온라인으로 실시간이나 쌍방향 수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대구의 ‘온라인 공동교육 캠퍼스’, 광주의 ‘거점센터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등도 일과 중에 온라인 수업 방식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에 속한다.

<Table 2> Types of joint curriculum between schools by provincial and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and number of research (leading) schools

	Name	Type of offline		Type of online ('Classroom Ondot' Utilization)	Number of research (leading) schools
		Core type	Coalition type		
Seoul	Colla Cam	Core-type Elective curriculum	Shared campus	Online joint curriculum	13(60)
Busan	Inter-school plus curriculum	-	School coalition type	BARO Class (regular) Ongong class	6(91)
Daegu	Joint curriculum	Offline joint curriculum	-	Online joint curriculum (regular) Daegu-style Online joint education campus	6(60)
Incheon	Kumdul joint curriculum	Core-type	Band type	Online type	2(60)
Gwangju	Inter-school joint curriculum	Inter-School cooperative curriculum		Online joint curriculum Core center online curriculum	4(48)
Daejeon	Neodunadu joint curriculum	Wide-area type I	Inter-school joint curriculum	Online joint curriculum	2(38)
Ulsan	Ulsan uliai joint curriculum	Offline joint curriculum		Online joint curriculum	2(28)
Sejong	Campus-type joint curriculum	Camgong I	-	Camgong III	0(16)
Gyeonggi	Joint curriculum	Offline joint curriculum		Online joint curriculum	9(383)
Gangwon	Dream plus joint curriculum	Inter-school joint curriculum	-	Online joint curriculum	4(63)
Chungbuk	Inter-school joint curriculum	Inter-school joint curriculum	-	Online joint curriculum	14(39)
Chungnam	True education joint curriculum	School coalition joint curriculum	-	Online joint curriculum	1(63)
Jeonbuk	Osun Dosun joint curriculum	Core-type	Cooperation type	Online joint curriculum	1(69)

<Table 2> Continued

	Name	Type of offline		Type of online ('Classroom Ondot' Utilization)	Number of research (leading) schools
		Core type	Coalition type		
Jeonnam	Joint curriculum	Core center (Regular) Artpe school	Offline joint curriculum	Online joint curriculum (after school)	5(86)
Gyeongbuk	Inter-school Eoullim joint curriculum	Offline joint curriculum	-	Online joint curriculum	7(117)
Gyeongnam	Gyeongnam Cham joint curriculum	School coalition joint curriculum	-	Online joint curriculum	9(108)
Jeju	Inter-school joint curriculum	School core type	School coalition type	Online joint curriculum	1(22)

Source from: Lee et al., 2021, p.75~76; <https://www.hscredit.kr/>

이 연구의 시점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의 80% 이상이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시도별로는 충청지역이 14개교로 가장 많고, 선도학교는 경기도가 383개교로 가장 많다. 시도별 평균은 연구학교가 5개교, 선도학교는 79.47개교 정도로 운영 중이다. 교육부는 추후 단계적으로 모든 지역의 일반계고를 연구·선도학교로 지정할 계획으로, 2022년도에 부산, 경기, 충북, 전남, 경북, 2023년도에 대구, 광주, 대전, 경남, 세종, 강원, 충남, 제주, 그리고 2024년도에는 서울, 인천, 울산, 전북 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다(Ministry of Education, 2021b).

3. 국내·외 고등학교 음악 선택과목

국내외 고등학교의 음악 선택과목 운영에 관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캐나다, 미국, 호주, 핀란드의 사례를 비교해보면 <Table 3>과 같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상의 예술영역은 무용, 연극, 음악, 미술 분야로 나뉘며, 9-12학년에서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음악 선택과목으로는 보컬 재즈, 성악/합창, 금관, 목관, 작은 앙상블, 밴드, 타악기, 현악, 기타, 건반 음악, 오케스트라, 스틸드럼 등의 연주과목과 그 외에 음악 창작, 전자음악, 무대-밴드 음악, 음악과 컴퓨터, 레퍼토리, 공연 음악 등이 개설된다(Lee, Jeong, & Oh, 2022; Lee, 2022).

미국 고등학교에서는 일반음악과 전공과 연계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 9-12학년의

고등학교 수준의 음악 선택과목으로는 음악이론, 오케스트라, 밴드, 앙상블, 합창, 개인레슨, 뮤지컬, 재즈 그룹, 미국음악 역사, 테크놀로지, 시창·청음 등이 개설된다.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오디션 등을 거쳐 수준별로(Music 1-4 등) 수강할 수 있고, 이러한 정규수업 외에 개인레슨도 받을 수 있다(Lee, Jeong, & Oh, 2022; Lee, 2022).

<Table 3> Information related to domestic and foreign high school arts and music electives

Country	High school years (grade)	Art area	Music elective course	Credit/unit
Ontario, Canada	4years (Grades 9-12)	Dance, Theater, Music, Art	Vocal Jazz, Vocal/Choir, Brass, Woodwind, Small Ensemble, Band, Percussion, Strings, Guitar, Keyboard Music, Orchestra, Steel Drum, Music Creation, Electronic Music, Stage-Band Music, Music and Computer, Repertoire, Performance Music, etc.	Credit
Texas, United States	4years (9-12th grade)	Dance, Media Art, Music, Theater, Art	Music theory, Orchestra, Band, Ensemble, Choir, Private Lessons, Musicals, Jazz Groups, American music history, Technology, Sight singing and so on	Credit Unit
Australia	3years (10-12th grade)	Dance, Theater, Media Arts, Music, Visual Arts	(10th grade) Music	Unit
			(11-12th grade) Music performance (Unit 1-4), Music research (Unit 1-3), Music style and creation (Unit 1-4)	
Finland	3years (10-12th grade)	Home Economics, Visual Arts, Craft, Physical Education, Media Exploration, Music, Dance, Theater	Required subjects: Intro, Beat Elective subjects: Genre, Demo	Course
Republic of Korea	3years (10-12th grade)	Music, Art, Theater	General subject : Music, Music performance, Music appreciation and criticism	Unit
		Music, Art, Dance, Theater, Photography, Literature, Film	Specialized subject I : Music theory, Music history, sight singing & ear training, Music major practice, Choir, Ensemble, Performance practice	

Source from: Ministry of Education website; Lee et al., 2022; Lee, 2022

미국 학교의 교육과정은 주마다, 학교마다 교육여건에 따라 자체 개발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서로 다르고 음악 선택과목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 텍사스주의 한 고등학교의 심화과정 교과목 체계(FHSP)에 따른 예술분야 영역에는 음악, 연극, 미술, 무용,

영화가 있는데, 음악 선택과목에는 밴드, 합창단, 오케스트라, 재즈 앙상블, 재즈 즉흥 연주, 기악 앙상블, 성악 앙상블, 세계 음악 앙상블, 응용 음악, Mariachi, 피아노, 기타, 하프, 음악이론, 음악감상, 상업 음악, 작곡, 음악 제작, 음악 및 미디어 통신, 그 외, College Board AP(Advanced Placement) 음악이론 등이 있다. 각각의 과목들은 선수과목 이수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다음 단계의 심화 과정을 수강할 수 있게 된다(Lee, 2022).

호주의 고등학교 편제의 예술 교과군은 댄스, 연극, 미디어 예술, 음악, 시각 예술로 편성된다. 10학년은 ‘음악’ 과목을 수강하지만, 11-12학년에서는 음악공연(1-4단계), 음악 조사(1-3단계), 음악 양식과 창작(1-4단계)의 선택과목을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수강할 수 있다. 핀란드의 고등학교는 학점제로 운영되며 예술 교과군은 음악, 연극, 미술, 무용, 영화 분야로 나뉜다. 10-12학년에 필수 이수 학점은 2학점이며 선택과목 중에 2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필수 음악 과목은 ‘기초(Intro)’, ‘박(beat)’이며 선택과목으로는 ‘양식(Genre)’, ‘데모(Demo)’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교는 9학년부터 12학년에 해당하며 3년간 교육이 이루어진다. 현재는 교과목의 시수를 ‘단위’로 표기하고 있지만,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 실시에 따라 ‘학점’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현재 예술 영역에는 음악, 미술, 연극 분야가 포함되어 있으며 일반 교과 편제 과목은 음악, 음악연주, 음악감상과 비평이며, 전문교과 편제에 따른 전문교과 I 과목에는 음악이론, 음악사, 시창·청음, 음악 전공실기, 합창, 합주, 공연 실습 등이 있다.

IV. 연구 결과

1.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음악 선택과목 개설 추이 분석(2020년~2021년)

1)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음악 선택과목 개설 수 추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음악 선택과목의 개설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Table 4>와 같이 2021년도 전국에 개설된 음악 선택과목 수는 총 59개로 전년도 대비 19개 증가함에 따라 47.50%의 증가율을 보였다. 오프라인 음악 선택과목 수는 2020년 32개 음악 선택과목 개설에서 2021년에는 53개가 개설됨에 따라 65.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된 음악 선택과목은 2020년에 8과목에서 2021년에 6개로 줄어들어 2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Trends in the number of elective music courses opened between schools

(unit: increase rate (%))

Division		2020	2021
Total	Number of courses offered(subject)	40	59
	Year-on-year increase(%)		47.50% increase
Offline joint curriculum	Number of courses offered(subject)	32	53
	Year-on-year increase(%)		65.63% increase
Online joint curriculum	Number of courses offered(subject)	8	6
	Year-on-year increase(%)		25% decrease

구체적으로 과목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Table 5>와 같이, 2020년 대비 2021년에 ‘시창·청음’, ‘합창’ 과목의 개설 수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는데, ‘시창·청음’강좌는 3개에서 9개로 증가하였고, ‘합창’의 경우 전년도에 개설되지 않았다가 2개 강좌가 새롭게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이론(85.7%), 전공실기(62.5%) 과목도 증가하였으나, ‘음악사’는 2020년도 대비 2021년도에 50% 감소하였고, ‘합주’는 전년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Table 5> Trends in the number and increase in the number of music elective courses in joint education courses between schools

	Year	General subject		Specialized subject I							etc.	Sum
		Music appreciation and criticism	Music performance	Music theory	Music history	sight singing & ear training	Major practical	Performance practice	Ensemble	Choir		
Number of courses opened	2020	0	3	7	10	3	8	4	4	0	1	40
	2021	1	4	13	5	9	13	6	4	2	2	59
Rate of increase(%)		100	33.3	85.7	-50	200	62.5	50.0	0	200	100	47.5

2)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음악 선택과목 개설 학교 수 추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음악 선택과목을 개설한 학교 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2021년도에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음악 선택과목을 개설한 학교 수는 46개교로 전년도 대비 35.29%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오프라인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음악 선택과목을 개설 학교 수는 2020년도에 28개교에서 2021년에는 41개교로 증가함에 따라 46.43% 증가율을 보였고, 온라인 음악 과목 공동교육과정 개설 학교 수는

16.67% 감소(6개교→5개교)하였다.

<Table 6> Number of schools offering music elective courses in joint curriculum between schools and trend of increase

Division		2020	2021
Total	Number of schools	34	46
	Growth rate compared to 2020(%)		35.29% increase
Offline joint curriculum	Number of schools	28	41
	Growth rate compared to 2020(%)		46.43% increase
Online joint curriculum	Number of schools	6	5
	Growth rate compared to 2020(%)		16.67% decrease

2. 시도교육청별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음악 선택과목 개설 현황

2020년과 2021년도의 시도교육청별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된 음악 선택과목의 개설 현황은 <Table 7>과 같다. 먼저, 개설 음악 선택과목은 ‘보통교과’ 중에 ‘음악 감상과 비평’, ‘음악연주’와 전문교과 I에 해당하는 ‘음악이론’, ‘음악사’, ‘시창·청음’, ‘전공 실기’, ‘공연 실습’, ‘합주’, ‘합창’ 등이었다. 그 밖에 학교의 필요상황과 학생의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개설된 국가 교육과정 고시 외 과목으로는 ‘실용음악’, ‘반주법’, ‘작곡이론’이 개설되었다.

2020년도의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음악 선택과목의 전국 시도별 평균 개설 과목 수는 [Figure 1]과 같이 2.35개였다. 최대 9개 과목을 개설한 A 지역을 제외하고, C, E, F, J, K, L, M, O, P 등 9개 지역에서는 2개~6개의 음악 선택과목이 개설되었고, 나머지 B, D, G, H, I, N, Q 등 7개 지역에서는 음악 선택과목이 개설되지 않았다.

2021년도에는 전국 시도의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된 음악 선택과목 평균 개설 수가 3.47개로 집계되었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음악 선택과목이 가장 많이 개설된 지역은 A, O 지역으로 9개 과목이 개설되었고, 6~8개 과목 정도가 개설된 곳은 B, C, J, M 등 4개 지역이었다. 7개 지역인 D, E, F, I, K, L, P에서는 1~3개 정도였으며, 나머지 G, H, N, Q 등 4개 지역에서는 음악 선택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unit: pieces (%))

[illegible]



[Figure 1] Ratio of open music elective courses in joint education courses between schools by provincial and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in 2020 and 2021

이를 종합해보면, 2021년에는 전년도 보다 지역별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의 음악 선택과목 개설 수가 평균 1.12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A 지역은 2년간 음악 선택과목 수가 9개로 가장 많았고, B, C, D, I, J, M, O의 7개 지역에서는 전년도 대비 음악 선택과목 개설 수가 증가하였으며, 전년도에 개설되지 않았다가 2021년에 새롭게 음악 선택과목이 개설된 지역은 B, D, I 3곳이었다. 반면에, E, F, K, L, P의 5개 지역에서는 전년도 보다 대략 1개씩 개설 수가 감소하였으며, 2년 동안 음악 선택과목이 전혀 개설되지 않았던 곳으로는 G, H, N, Q의 4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17개 시도교육청에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된 음악 선택과목의 수는 평균 3과목 정도로, 개설 수는 지역별로 0-9개까지 편차가 있었고 과목 수가 증가했던 지역은 7곳, 감소한 지역은 5곳이었으며, 증감의 변화가 없던 지역은 1곳, 그리고 2년간 음악 선택과목이 전혀 개설되지 않았던 지역도 4곳이었다.

3.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음악 선택과목 세부 운영 현황 분석

1) 단위 학교 수준의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음악 선택과목 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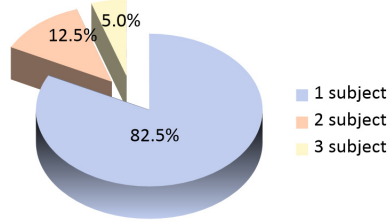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음악 선택과목을 개설한 단위 학교당 개설 수는 <Table 8>과 [Figure 2]에서와 같이, 1개부터 최대 3과목의 음악 선택과목을 개설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1개의 음악 선택과목을 개설한 학교는 2020년도에 총 29개교로 85.3%였고, 2021년에는 37개교로 학교 수는 증가하였지만, 전체 비율은 80.4%로 감소하였다. 2개 과목의 개설 학교는 2020년에는 4개 학교로 11.8%였으며, 2021년에 6개교로 늘어나 13.3%를 차지하였다.

<Table 8> Number of elective music courses in the joint curriculum between schools per unit school

(unit: units (%))

Number of courses offered	Number of schools		
	2020	2021	Sum
1	29(85.3)	37(80.4)	66(82.5)
2	4(11.8)	6(13.3)	10(12.5)
3	1(2.9)	3(6.5)	4(5)
Total	34(100)	46(100)	80(100)



[Figure 2] Distribution of the number of elective music courses in the joint curriculum between schools per unit school

3개 과목을 운영 학교는 2020년에 1개교(2.9%)에서 2021년에 3개교(6.5%)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교에서 음악 선택과목을 개설하는 경우 대부분 1개 과목을 개설하고 있었고, 복수로 음악 선택과목이 개설된 학교는 음악 중점학교이거나 음악 거점학교인 경우였다. 2020년~2021년간의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음악 선택과목을 개설한 단위 학교당 음악 선택과목 수별 분포를 종합해보면, 1개 과목의 개설 학교가 82.5%의 비율로 가장 많고, 2개 과목(12.5%)과 최대 3개 과목(5%)까지 복수로 개설되기도 했으나 그 비율이 낮았다.

2)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의 과목 편제별 음악 선택과목 개설 현황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의 과목 편제별 음악 선택과목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Table 9>와 같이 보통교과 중에서 ‘진로 선택과목’과 ‘전문교과Ⅰ’ 및 고시 외 과목이 개설되었으며, ‘보통교과’의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 ‘전문교과’의 ‘전문교과Ⅱ’과목은 개설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설 과목의 편제는 대부분 전문교과Ⅰ로서 2020년도에는 90% 2021년도에는 88.1%였으며, 진로 선택과목의 경우 2020년도에 7.5%와 2021년도에는 8.5%로 나타났다. 전문교과Ⅰ의 경우에 음악사, 시창·청음, 음악이론, 전공 실기 등 음악 심화 및 예비전공을 위한 과정으로 원하는 학생들이 소수이거나 학교의 교육 환경 여건에 따라 단위 학교 차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여서 학교 간 협력을 통해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채택하게 된 결과이다.

2020년과 2021년의 개설 결과를 종합해보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된 음악 선택과목의 편제 비율의 대부분은 전문교과Ⅰ로서 88.9%, 그 외 진로 선택과목 8.1% 및 고시 외 과목은 3%의 비율로 개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Table 9> Current status of open music elective courses by subject organization of joint curriculum between schools

(unit: pieces (%))

Year	General subject			Specialized subject		etc.	Sum
	Common subject	General subject	Career elective course	Specialized subject I	Specialized subject II		
2021	0(0.0)	0(0.0)	5(8.5)	52(88.1)	0(0.0)	2(3.4)	59(100)
2020	0(0.0)	0(0.0)	3(7.5)	36(90.0)	0(0.0)	1(2.5)	40(100)
Total	0(0.0)	0(0.0)	8(8.1)	88(88.9)	0(0.0)	3(3.0)	99(100)

3)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음악 선택과목별 개설 현황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음악 선택과목별 개설 현황은 <Table 10>에서와 같이, 2020년에는 ‘음악사’의 개설 비율이 25%로 가장 높았고, ‘음악연주’와 ‘시창·청음’은 7.7%로 비교적 낮았으며, ‘음악감상과 비평’ 및 ‘합창’은 전혀 개설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전공 실기’와 ‘음악이론’의 개설 비율이 22%로 가장 높았고, ‘음악감상과 비평’의 개설 비율은 1.7%로 가장 낮았다.

2년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전공 실기가 21.2%로 가장 많이 개설되고, 전문교과 중에는 ‘합창’의 개설 비율이 2%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일반과목은 ‘음악연주’의 개설 비율이 7.1%였으나, ‘음악감상과 비평’은 1%로 가장 낮은 개설 비율을 보였다.

<Table 10> Current status of inter-school joint curriculum by each elective music course

Year	General subject		Specialized subject I							etc.	Sum
	MA&C*	Music performance	Music theory	Music history	sight singing & ear training	Major practical	Performance practice	Ensemble	Choir		
2021	1 (1.7)	4 (6.8)	13 (22.0)	5 (8.5)	9 (15.3)	13 (22.0)	6 (10.2)	4 (6.8)	2 (3.4)	2 (3.4)	59 (100)
2020	0 (0.0)	3 (7.5)	7 (17.5)	10 (25.0)	3 (7.5)	8 (20.0)	4 (10.0)	4 (10.0)	0 (0.0)	1 (2.5)	40 (100)
Total	1 (1.0)	7 (7.1)	20 (20.2)	15 (15.2)	12 (12.1)	21 (21.2)	10 (10.1)	8 (8.1)	2 (2.0)	3 (3.0)	99 (100)

*Music appreciation and criticism

2020년~2021년의 음악 선택과목별 개설 수에 의한 순위 비교는 <Table 11>과 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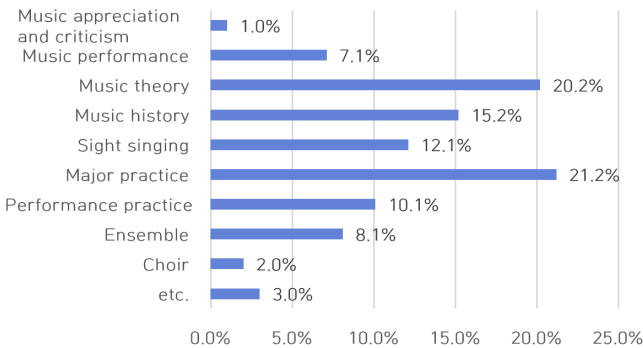
2020년에 음악사(10)가 개설 순위 1위였고, 2위는 전공 실기(8), 3위는 음악이론(7)이었다. 공연 실습과 합주는 공동 4위, 5위는 시창·청음과 음악연주였다.

2021년에는 전공 실기(13)와 음악이론(13)이 공동 1위로 가장 많이 개설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5개~6개가 증가하였다. 시창·청음(9)과 공연 실습(6) 과목의 개설 수도 전년도 대비 2개~6개의 폭으로 증가하였다. 반면에, 음악사(5)는 전년도 보다 절반 이상이 줄어 4순위로 떨어졌고, 5순위는 합주 및 음악연주, 그리고 2021년도에 새로 개설된 합창(2), 음악감상과 비평(1) 과목이 다음 순위로 나타났다.

<Table 11> Comparison of the opening rankings for each elective music subject in the joint curriculum between schools

(unit: pieces)

2020			2021		
Ranking	Subject name	Number of openings	Ranking	Subject name	Number of openings
1	Music history	10	1	Major practical	13
2	Major practical	8		Music theory	13
3	Music theory	7	2	sight singing & ear training	9
4	Performance practice	4	3	Performance practice	6
	Ensemble	4	4	Music history	5
5	sight singing & ear training	3	5	Ensemble	4
	Music performance	3		Music performance	4
	etc.	1	6	Choir	2
			7	Music appreciation and criticism	1
				etc.	2



[Figure 3] From 2020 to 2021, the ratio of open inter-school joint education courses for each elective music course (unit:%)

2020년~2021년간의 과목별 개설 비율을 종합하면 [Figure 3]과 같이, ‘전공 실기(21.2%)’와 ‘음악이론(20.2%)’의 개설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음악사(15.2%)’, ‘시창·청음(12.1%)’, ‘공연 실습(10.1%)’ 순이었다. 가장 낮은 비율로 개설된 과목은 ‘합창(2.0%)’이었으며, 보통교과 중에서는 ‘음악연주’는 7.1%였으며, ‘음악감상과 비평’의 개설 비율이 1.0%로 가장 낮았음을 알 수 있다.

4. 학교 특성에 따른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음악 선택과목 개설 현황

학교 특성에 따른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개설 음악 선택과목 운영 현황은 <Table 12>와 같다. 먼저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학교 규모에 따른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음악 선택과목의 개설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의 규모가 25개 학급 이상 혹은 재학생이 600명 이상인 대규모 학교의 개설 비율은 2020년도에 60.0%, 2021년도에 42.4%로 중소규모의 학교에 비해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는 중규모, 소규모 학교 순이었다.

지역 특성에 따라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설 비율을 비교해보았을 때, 대도시가 가장 높았는데, 2020년도에 62.5%, 2021년도에 59.3%로 나타났다.

<Table 12> Current status of open music elective courses in joint education courses between schools by subject organization according to school characteristics

(unit:pieces (%))

Year	School characteristics		General subject	Specialized subject	etc.	Sum
2021	Total		5(100)	52(100)	2(100)	59(100)
	School size	Large	1(20.0)	24(46.2)	0(0.0)	25(42.4)
		Medium	3(60.0)	19(36.5)	0(0.0)	22(37.3)
		Small	1(20.0)	9(17.3)	2(100)	12(20.3)
	Regional characteristics	Big city	2(40.0)	33(63.5)	0(0.0)	35(59.3)
		Small and Medium-sized city	0(0.0)	13(25.0)	2(100)	15(25.4)
		Towns and villages	3(60.0)	6(11.5)	0(0.0)	9(15.3)
	Designated school type	Research school	0(0.0)	3(5.8)	0(0.0)	3(5.1)
		Leadership school	2(40.0)	28(53.8)	2(100)	32(54.2)
		etc.	3(60.0)	21(40.4)	0(0.0)	24(40.7)
	School type	General high school	5(100)	44(84.6)	0(0.0)	49(83.1)
		Art high school	0(0.0)	4(7.7)	2(100)	6(10.2)
		etc.	0(0.0)	4(7.7)	0(0.0)	4(6.8)

<Table 12> Continued

Year	School characteristics		General subject	Specialized subject	etc.	Sum
2020	Total		3(100)	36(100)	1(100)	40(100)
	School size	Large	2(66.7)	21(58.3)	1(100)	24(60.0)
		Medium	0(0.0)	13(36.1)	0(0.0)	13(32.5)
		Small	1(33.3)	2(5.6)	0(0.0)	3(7.5)
	Regional characteristics	Big city	2(66.7)	22(61.1)	1(100)	25(62.5)
		Small and Medium-sized city	0(0.0)	7(19.4)	0(0.0)	7(17.5)
		Towns and villages	1(33.3)	7(19.4)	0(0.0)	8(20.0)
	Designated school type	Research school	0(0.0)	3(8.3)	0(0.0)	3(7.5)
		Leadership school	3(100)	19(52.8)	1(100)	23(57.5)
		etc.	0(0.0)	14(38.9)	0(0.0)	14(35.0)
	School type	General high school	3(100)	35(97.2)	0(0.0)	38(95.0)
		Art high school	0(0.0)	1(2.8)	0(0.0)	1(2.5)
		etc.	0(0.0)	0(0.0)	1(100)	1(2.5)

연구 및 선도학교 유무에 따른 개설 비율은 선도학교 지정 고등학교의 개설 비율이 가장 높아 2020년에 57.5%, 2021년에 54.2%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연구학교에서의 개설 비중이 가장 낮았다(2020년도:7.5%, 2021년도:5.1%). 학교 유형별로는 일반고에서의 개설 비율이 가장 높아 2020년도에 95.0%, 2021년에 83.1%였으며, 예술고의 경우는 2020년에 2.5%, 2021년에 10.2%에 그쳤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학교 특성에 따른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음악 선택과목 개설 현황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 규모 특성별로 보면 대규모 학교에서 음악 선택과목을 개설하는 비중이 가장 컸으며, 중규모 다음으로 소규모 순서로 개설되었다. 지역 특성에 따른 구분을 보면 대도시에 위치하는 학교에서 음악 선택과목을 개설하는 비중이 가장 컸고, 선도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많은 만큼, 연구학교나 그 외 학교보다는 선도학교에서 많이 개설되고 있었다. 학교 유형별로 보면 예술고나 기타 학교보다는 일반고에서 많이 개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대규모와 대도시의 학교, 선도학교, 일반고에서 많이 개설하고 있었다. 반면에 개설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보통교과인 진로 선택과목의 경우에는 학교의 규모나 지역 특성에 따른 변별이 어려웠지만, 학교 유형은 거의 일반고에서 개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5. 온·오프라인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음악 선택과목 운영 현황

1) 온·오프라인 방식의 과목 편제별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음악 선택과목 개설 현황

온·오프라인 방식에 따른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음악 선택과목의 개설 현황을 살펴보면 <Table 13>과 같이, 2020년도와 2021년을 종합한 결과 85.9%가 오프라인으로 14.1%가 온라인으로 개설되었다. 과목 편제별로 구분해보면, 온·오프라인의 모든 수업방식에서 전문교과 I에 해당하는 음악 선택과목의 개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그 외에 소수의 진로 선택과목 및 고시 외 과목 등이 개설되었으며, 보통교과, 일반선택과목과 전문교과Ⅱ에 해당하는 과목은 개설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문교과 I의 온·오프라인 과목 편제별 개설 비율을 2020년과 2021년으로 종합해보면, 75.8%가 오프라인으로, 13.1%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온·오프라인 방식 모두에서 전문교과 I의 개설 비율이 가장 높았다.

오프라인 방식으로는 2020년도에 32개 과의 개설로 80%를 차지하였고, 2021년에 53개 과목으로의 증가로 89.8%였지만, 온라인 개설은 2020년 8과목 20%에서 2021년 5과목으로 8.5%로 감소하였다. 그 밖에 과목 편제는 개설되지 않거나 미미한 수준이었다.

<Table 13> Current status of open music elective courses by subject organization of joint curriculum between online and offline schools

(unit: pieces (%))

Year	Type	General subject			Specialized subject		etc.	Sub total	Sum
		Common subject	General elective courses	Career elective courses	I	II			
2021	Offline	0(0.0)	0(0.0)	4(6.8)	47(79.7)	0(0.0)	2(3.4)	53(89.8)	59(100)
	Online	0(0.0)	0(0.0)	1(1.7)	5(8.5)	0(0.0)	0(0.0)	6(10.2)	
2020	Offline	0(0.0)	0(0.0)	3(7.5)	28(70.0)	0(0.0)	1(2.5)	32(80.0)	40(100)
	Online	0(0.0)	0(0.0)	0(0.0)	8(20.0)	0(0.0)	0(0.0)	8(20.0)	
Total	Offline	0(0.0)	0(0.0)	7(7.1)	75(75.8)	0(0.0)	3(3.0)	85(85.9)	99(100)
	Online	0(0.0)	0(0.0)	1(1.0)	13(13.1)	0(0.0)	0(0.0)	14(14.1)	

2) 온·오프라인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음악 선택과목 개설 학교의 특성

온·오프라인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음악 선택과목 개설학교의 특성에 따른 개설 현

황을 살펴보면 <Table 14>와 같다. 첫째,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의 음악 선택과목 개설 비율은 학교의 규모가 클수록 음악 선택과목의 개설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2021년에 개설된 전체 음악 선택과목 수의 41.5%가 대규모 학교에서 개설되었으며, 중규모 학교는 35.8%, 소규모 학교는 가장 낮은 22.6%였다. 마찬가지로 2020년도에도 대규모 학교가 음악 선택과목 개설 비율이 62.5%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서 음악 선택과목을 많이 개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방식의 경우에는 소규모 학교를 제외하고 학교 규모에 따른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적 특성에 따라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으로 구분해본 결과를 보면, 2021년도에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음악 선택과목이 개설된 학교의 60.4%가 대도시에 위치하였고, 중소도시에 28.3%, 읍면지역에 11.3%가 개설되었다. 즉,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의 학생들보다 대도시에 있는 학생들의 음악 선택과목에 대한 수요가 많았고, 음악 관련 분야에 대한 진로와 적성을 가진 학생들이 대도시에 많았을 것으로 예측된다. 중소도시의 음악 선택과목 수는 전년도 15.6%에서 2021년에 28.3%로 증가하였으며 대도시나 읍면지역의 증가 폭보다 컸다. 반면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음악 선택과목의 개설 비중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의 구분 없이 거의 비슷하였다. 온라인 수업의 특성상 지역 구분 없이 어디서든지 온라인으로 쉽게 접근하여 참여할 수 있어 지역적 특성의 영향을 덜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고교학점제의 연구 및 선도 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의 음악 선택과목 개설 현황을 보면, 2021년에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음악 선택과목을 개설한 연구학교는 2곳이며, 선도학교는 30개 강좌를 개설하였고, 그 외 연구 및 선도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계 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에서 21개의 강좌를 개설하였다. 즉 선도학교에서 음악 선택과목을 개설하는 비중이 전체의 56.6%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2020년도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전국적으로 연구학교보다는 선도학교의 수가 훨씬 많은 이유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해보면, 오프라인으로 음악 선택과목을 개설한 학교의 특성을 살펴보면, 학교 규모별로는 규모가 클수록 많이 개설되었고, 지역적으로는 대도시가 가장 많았으며, 선도학교에서 주로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온라인 방식으로 음악 선택과목을 개설하는 학교의 경우 학교 규모나 지역 및 연구학교 유무에 따른 특성과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음악 선택과목이 개설된 학교는 대도시에 위치하거나 규모가 큰 학교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대도시 학생들의 음악 선택과목에 대한 수요가 많고 학생 수와 교사 수가 비교적

많은 대규모 학교가 거점학교로 운영되기에 상대적으로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읍면지역이나 소규모 학교에서도 필요에 따라 음악 선택과목을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과 여건을 마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Table 14> The number of music elective courses in the joint curriculum between online and offline school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chool

(unit: pieces (%))

School characteristics		Number of elective music courses in offline joint curriculum*		Number of elective music courses in the online joint curriculum	
		2020	2021	2020	2021
Total		32(100)	53(100)	8(100)	6(100)
School size	Large	20(62.5)	22(41.5)	4(50.0)	3(50.0)
	Medium	10(31.3)	19(35.8)	3(37.5)	3(50.0)
	Small	2(6.3)	12(22.6)	1(12.5)	0(0.0)
Regional characteristics	Big city	22(68.8)	32(60.4)	3(37.5)	3(50.0)
	Small and medium-sized city	5(15.6)	15(28.3)	2(25.0)	0(0.0)
	Towns and villages	5(15.6)	6(11.3)	3(37.5)	3(50.0)
Designated school type	Research school	3(9.4)	2(3.8)	0(0.0)	1(16.7)
	Leadership school	18(56.3)	30(56.6)	4(50.0)	2(33.3)
	etc.	11(34.4)	21(39.6)	4(50.0)	3(50.0)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이행 계획에 따라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된 음악과 선택과목 개설 추이와 운영 현황을 알아봄으로써, 고교학점제의 도입에 따른 음악 선택과목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음악 선택과목 수와 개설 학교 수 추이를 비롯하여, 온·오프라인 운영 현황, 시도교육청별 운영 현황, 편제 및 과목별 운영 현황, 개설 학교의 특성에 따른 음악 선택과목 개설 현황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된 음악 선택과목 수는 전년도 대비 2021년에 47.05% 증가하였고, 개설 학교 수도 35.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대비 수요가 증가하여 개설 증가율이 높은 과목은 시창·청음과 음악이론 등이었다.

둘째, 온·오프라인 유형별로는 온라인(14.1%)보다는 주로 오프라인(85.9%)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오프라인 방식으로 음악 선택과목을 개설한 학교의 특성을 살펴보면, 주로 학교 규모가 크거나 대도시에 위치하며 선도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온라인으로 개설된 음악 선택과목의 경우는 학교 규모나 지역 및 연구 및 선도학교 지정 여부와는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음악 선택과목을 개설한 단위 학교는 대체로 1개의 음악 선택과목만 개설하고 있었고(82.5%), 2과목을 개설한 학교는 12.5%였으며 최대 3개 과목(5%)까지 개설하기도 하였다.

넷째, 과목 편제별로는 전문교과 I 이 88.9%를 차지하였고, 그 외 진로선택 과목 및 고시 외 과목도 개설되었다. 개설 과목명은 음악감상과 비평, 음악연주, 음악이론, 음악사, 시창·청음, 전공실기, 공연실습, 합주, 합창 과목 등이었으며, 그중에서도 전공실기와 음악이론 과목의 개설 비율이 높았던 반면, 합창 및 음악감상과 비평의 개설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다섯째, 17개 시·도교육청별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의 음악 선택과목 개설 수는 0개~9개까지의 편차를 보였고 평균 3.47개의 과목이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대비 개설 수가 증가한 지역은 7곳으로, 5개 지역은 감소하였고 변동 없는 1개 지역과 전혀 개설되지 않은 지역도 4곳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개설 학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규모 학교에서 음악 선택과목을 개설하는 비중이 가장 컸고, 중규모, 소규모의 순으로 적게 개설되었다. 또한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 지역에서 많이 개설되었고, 연구학교나 그 외 학교보다는 선도학교 지정 학교에서 개설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학교 유형별로는 예술고나 기타 학교보다는 일반고에서 주로 개설되고 있었다.

이상에서의 본 연구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음악 선택과목 수강 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로 음악 선택과목의 개설 수가 지역별로 편차가 컸고, 특히 대규모 학교 대도시 지역에 편중되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대도시나 대규모 학교로의 쏠림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음악 전문가 활용 방안 등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들의 음악 진로에 따른 맞춤형 음악 선택과목 지원체제와 운영체제의 내실화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전국적으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의 음악 선택과목 개설 수는 낮은 편으로 그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학생들의 음악 선택과목에 대한 낮은 선호도와 열악한 음악교육 환경 여건, 음악 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 방법 등의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셋째,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음악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과 더불어 학교 밖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역연계 및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며 평생교육과 사회교육의 차원에서 음악교육의 활성화 방향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시·도교육청 간 협력체제를 구성하여 각 시도별로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개념 정의와 유형별 구분 및 운영에 대한 합의를 통해 시·도교육청별로 다른 ‘거점형’과 ‘연합형’에 대한 개념과 운영방식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조사한 학점제로 운영되는 해외 고등학교의 음악 선택과목 운영사례에서처럼 학생들의 음악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음악 선택과목의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가야 할 것이며, 다양한 음악 선택과목의 개설뿐만 아니라, 단계별로도 수강이 가능하도록 폭넓은 경험을 제공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의 음악 선택과목 개설 현황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데, 추후 시도별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된 음악 선택과목의 수업 운영 방식, 프로그램 내용, 평가방식 등에 대해 분석, 다른 영역의 예술 과목 개설 현황과 음악 선택과목 현황의 비교분석, 대학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동교육과정에서의 음악교육의 실태 파악 등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음악 선택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소수 학생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대도시나 대규모 학교 중심으로 확대되어있는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며,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육 기회가 균형적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앞으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에서의 음악 교과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학교 밖 공동교육과정으로 확대되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Bae, S. Y. (2019). An analysis of arts curriculum of high schools in seoul.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8(2), 37-59.
- Hyun, K. S., & Hong, H. Y. (2016).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music curriculum of the arts high schools in Korea, the USA, Canada and Australia.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5(1), 119-137.
- Kim, H. M., Lee, J. Y., Lee, S. J., Kim, T. H., Lee, S. A., & Kim, G. C. (2020). *Analysis*

- of high school credit system research school operation status* (research report CRC 2020-11). Chungbuk: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 Lee, J. Y., Lee, K. W., Kwon, J. R., Baek, K. S., Bae, H. S., & Jeon, H. J. (2021). *Exploring ways to improve the shared curriculum under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Research report RRC 2021-5). Chungbuk: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 Lee, S. J., Jeong, J. E., & Oh, J. H. (2022). An exploration of music elective-centered curricula through an analysis of foreign cases. *Journal of Future Music Education*, 7(2), 107-133.
- Lee, Y. M. (2021). Features of finnish high school music curriculum and implications for Korean high school credit system in music subject.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Studies*, 16(5), 153-185.
- _____ (2022).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f music subject system and elective course organization on music curriculum of high school level according to open credit system: With a focus on Canada, Austrailia, America, and Finland. *The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20(2), 27-56.
- Lim, E. J. (2021). A study on the operation plan of regional-centered music curriculum by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The Journal of Korea Elementary Education*, 32(4), 17-32.
- Ministry of Education (2015a). *Music curriculum*. No. 2015-74. [Supplementary 12].
- _____ (2015b). *Overview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curriculum*. No. 2015-80.
- _____ (2021, February 17). *In 2025, announcing a comprehensive promotion plan for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to realize high school education for inclusiveness and growth*. Retrieved March 10, 2022, from <https://url.kr/zmtk5r>
- _____ (2021a). *2022 revised overview draft of curriculum general discussion main items*.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_____ (2021b). *Step-by-step implementation plan for the full applica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in 2025 (draft)(2022-2024)*. Retrieved May 10, 2022, from <https://www.moe.go.kr>
- _____ (2021c).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Retrieved March 21, 2022, from <https://www.law.go.kr/>
- _____ (2022a). *High school credit system introduction and operation guide* (Research data ORM 2022-43). Chungbuk: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 _____ (2022b). *2022 school year record book entry tips*. Retrieved May 1, 2022, from www.moe.go.kr
- Park, J. H., & Kim, J. H. (2021). A study on organizing and operating elective subjects in music curriculum according to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19(2), 133-151.
- _____ (2021b). Comparative analysis of music curriculum: Focusing on USA, Canada, Australia, New Zealand, Singapore, Germany, France, and Finland.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0(4), 71-92.
- Park, M. H. (2021a). Operational status and improvement of joint curriculum-focusing on the high schools in Daegu. *The Journal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24(4), 31-58.
-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22). *Seoul high school credit system formation and operation manual for collaborative curriculum between schools*. Seoul Education, 2022-72.
- Inter-School Joint Curriculum (n.d.). *High school credit system*. Retrieved May 8, 2022, from <https://www.hscredit.kr/>